

“감사합니다”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의 식량난 해를 위해 남한동포들이 보내는 식량이 지난 12일부터 신의주와 남양 도문지역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되기 시작했다.

이번 식량 전달은 5월 26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사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전달될 총량은 옥수수 등 모두 5만톤이다. 남한측은 이 5만톤 전량을 오는 7월까지 남북 적십자사 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전달키로 되어있다.

옥수수에 담긴 동포애

남한 동포들이 정성들여 모아 보낸 이 식량이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에게 차질없이 정확하게 전달돼 북한동포들의 기아해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또 우리들의 대북 식량지원의 단속이 북한동포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을 뛰어넘어 남북 대화와 화해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여영무 (경희대 객원교수)

그런 의미의 먼저 북한 적십자사 남북 동포들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우리민족 전래의 미풍일 뿐 아니라 동포로서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한다.

북한의 식량 배급체제가 무너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1인당 하루 700g을 먹어야 할 어른들이 300g 또는 100g씩의 적은 배급량으로 모진 목숨을 지탱하고 있어 대부분 북한동포들은 빈사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 아무런 외부 도움없이 방치될 때 긴급일이 정권유지 탈출구를 위해 대남무력도발도 서슴치 않을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도 흘러 나오고 있다.

분배 투명성 확인 철저

군량미를 민수용으로 방출해서 식량난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한다든지 혹은 대남 비방중상 방송을 중단하는 성의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우리가 보낸 식량이 확실히 북한동포들에게 제때 분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 적십자지원원이 식량 분배과정에서 참여토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서울하늘 이젠 ‘오존과 전쟁’

오존 주의보 울들어 10번... 기준치 초과 39일 자동차 배출가스 주원인... 폐혈증세 유발

서울지역에 14일부터 3일연속 오존주의보가 발령돼 수도권 대기오염 상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이후 96년 한해 동안 서울에서만 11차례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는 벌써 10차례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이 물질들이 햇빛과 반응해 오존농도를 높인다. 따라서 배기가스의 철저한 규제, 저공해 자동차 기술이 개발이 오존농도를 낮추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경제적이고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동차 운행 자체를 억제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오존의 위협을 막는 지름길이다.

한편 환경부는 7월부터 일기예보 때 오존경보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오존예보제를 실시한다.

정성운 기자



서울지역에 사흘째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의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운행은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청된다.

틀교의논

환경부 교통공해과 이수철씨는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80%는 자동차 배출가스”라며 “시민들이 자동차운행을 자제해주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고원대 환경학과 정용승교수는 “수은주가 올라가고 공기유동이 안되는 날에 매연이 증폭되면 오존농도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자동차운행을 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남

차량운행 자제 ‘최선책’

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정에서는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극구 경계하고 있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도 갈 수 없다. 그러나 언제 어디로 가든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더없이 소중한 것. 그러기에 자기의 소중한 마음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는 안된다.” (남전대장경 제12권)

지계 금주 파계

시민단체 돈정치추방 앞장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44개 단체는 10일 ‘돈정치 추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18일 처벌조항강화, 정당 기탁금제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향민 옥수수 5백톤 기탁

...16일 동향사람 3명과 함께 황해도 배천군(옛 연백군)에 보낸 옥수수 5백톤(약 6천5백만원어치)을 우리민족서로돕기회 지경기탁한 이찬주씨(74). “남한으로 와서 어렵지 않게 살았으니 전 재산을 모두 기탁한들 북의 가족들에게 보살핌 수 있겠느냐며 기탁자가 나서주길 호소했다.

맥주 1병에 1원 ‘통일기금’

...조선맥주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20일부터 2개월간 하이맥주에서 병당 1원씩 모아 통일조성기금으로 출원키로 했다. 회사측은 2억4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구청직원 매주 자비봉사

...14일 서울 중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사랑의 나눔 자원봉사대’ 회원 1백여명은

경부고속철 환경평가 줄속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까지 줄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5일 천안~청원 등 4개 구간은 사속 160km의 일본 신칸센 방식 적용을 방음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예따라 집단민원이 예상된 구간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방화·시비끝 살인 잇따라

...광화문 시비끝에 사람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북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이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3명에게 부상을 입힌 강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용정동 김모씨(40)는 18일 시내버스안에서 시비끝에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했다.

불법복제 CD판 21명 구속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6일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 불법복제한 CD를 판매한 혐의로 21명을 구속했다. 한글과 컴퓨터사 이찬진사장은 “불법복제가 만연하는 현실에선 ‘한국의 빌 게이츠’는 빛좋은 개살구

농협 도시락서 대장균 검출

...농협중앙회 급식센터에서 판매하는 김밥도시락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위생에 이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17일 도시락 제조업체 150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실시,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 56개 업소의 김밥도시락을 수거해 대장균 검출 여부를 조사, 위생상태가 불량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

10대 남녀 아기출산 살해

...10대 남녀가 아기를 낳아 숨지게 한 후 번거로워 빠뜨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유모차(18·무지)와 안모양(17·H고3)은 16일 서울 모여관에 투숙, 안양이 아기를 낳자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하고 번거로워 빠뜨렸다. 이들은 여관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교재가격 조작 4백억 부당이익

...한국교육방송원(EBS)이 방송교재 가격을 부풀려 출판사들과 4백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18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전·현직 사업국장 등 간부 5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정주영 밀가루’ 18일 제11회 제당 직원을 이 북한으로 보낸 밀가루 포대에 기증자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기증자 표시를 붙이고 있다.

근무를 마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집으로 향했다. 도매, 장판교재, 보일러수리 등 모두 124가구에 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스며들었다.

조선족 유치원에 교재보내기

...“조선족들은 한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장춘 조선족유치원에 교재·교구를 전달한 중국조선족유치원 후원회장 유지령씨(월간 <유아> 발행인). “그나마 있는 교재중에는 김일성전집 등이 대부분”이라며 교재보내기 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02-274-9510)

신입생 모집 안내
학과목 안내
교육기간
강의요일 및 시간
강사: 우정운 스님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광운포교원
부설: 광운불교교양대학
122-043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389-8966(FAX:387-8529)

천축옥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횡병, 노화방지...
www.yousan.com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雲藏)法師의 생필(眞本) 반야심경
금강경, 법구, 각종 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教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한국 佛子에게 1책 보
한국인정 佛子(眞本)
주문 신청방법
시원(眞本) (단체주문은 사절)
주소: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전화: 122-043

우리 국악으로 지장경을 독송합니다!!
창작국악 고성곡
불발에 피는 꽃은 '지장경'
우리 말로 읊은 창작국악고성곡이다
역의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중생구제를 위해 애쓰시는 지장보살 그 모습은 한 떨기 청아한 연꽃이다.
저절한 참회와 지극한 기도. 그리고 환희의 카타르시스가 있는 이 곡은 국악과 양악의 적절한 만남 그리고 법택의 현대적 재창조로 전통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김/만영곡·곡·지휘/김희경
합창/수원포교당 가톨릭합창단
중앙대 성악과 남성합창단
연주/중앙국악관련악단·피아노/함경아
특별출연/김성녀·김영림·성기훈
연정숙·한미경·덕신스님
지구레코드 CD발매(2장)/정가 17,000원/사원에서 다량 주문시 할인 가능
전국의 유명 음악가 및 조제사 앞에서 판매 중인 ☎ (0331)255-2692